

소설로 쓴 ‘노라이즘’

-나혜석 「경희」, 「현숙」, 「어머니와 딸」을 중심으로

남은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목차

- 1 들어가며
- 2 나혜석의 ‘노라이즘’
- 3 새로운 관계의 주도자: ‘결혼’하지 않는 신여성
- 4 ‘경희’의 후일담: ‘재혼’하지 않는 신여성
- 5 나오며

첫 글 「이상적 부인」(1914)에서 ‘노라’에 대한 동경을 보였던 나혜석은 1921년 『인형의 가』에 삽화를 그리고 시 「인형의 가」를 발표했으며 단행본 『노라』(1922)에 ‘노라’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실었다. 첫 세대 신여성 나혜석은, 김우영과 이혼 후 ‘인형의 집’을 나선 노라의 삶을 몸소 살아냈다. 삶의 전반에서 몰락하고 고립되었으나 자신의 삶과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1933년 자전 소설로 알려진 『김명애』를 쓰고 소설 「현숙」(1936), 「어머니와 딸」(1937)을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갔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않았던 「현숙」과 「어머니와 딸」은 「경희」(1918)와 연결시켜 분석할 때 새로운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현숙」과 「어머니와 딸」은 ‘인형의 집’ 입성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통해 ‘조선의 노라’의 현실을 서사화하였다는 점에서 신여성 ‘경희’의 1930년대 후일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들을 재독함으로써 1920~1930년대의 신여성 담론과 여성의 문제를 연속적인 시야에서 논의할 수 있다. 나혜석은 소설로 쓴 ‘노라이즘’을 통해 전근대의 억압과 근대의 모순이 결합된 조선식(式) 인형의 집을 존속시키는 결혼과 가족제도를 모두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군국주의가 강화되며 가족주의와 양치현모 담론이 강조되었던 1930년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새롭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고는 ‘신여성’이 아닌 ‘작가’로서의 나혜석에 대한 관심으로 나혜석 문학 연구의 방향을 선회하여 나혜석 문학을 총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문핵심어 : 노라, 인형의 집, 신여성, 결혼, 후일담

1 들어가며

공개적으로 발표한 첫 글 「이상적 부인」(1914)에서 노라에 대한 동경을 내보였던 나혜석은¹ 1921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인형의 가』²에 삽화를 그리고 마지막

1 이상적 부인이라 할 부인은 그 누구이고. 과거 및 현재를 통하여 이상적 부인이라 할 부인은

회 지면에 시 「인형의 가」를 발표했으며 이후 출간된 『노라』(1922)³에 ‘노라’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실었다. 조선의 첫 세대 신여성으로서 그 걸음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나혜석은 김우영과 이혼 후 ‘인형의 집’을 나선 노라의 삶을 몸소 살아냈다고 할 수 있다.⁴

지금까지 나혜석에 대해 노라와 관련시켜 논의한 연구에서는 선구적 신여성으로 주목받았던 1910년대 후반~192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신여성 나혜석을 노라와 비교하거나, 나혜석의 수필·평론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데 집중되었다. 이러한 시기나 장르적인 편중은 ‘신여성’ 나혜석을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 나혜석 문학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⁵ 본고는 나혜석이 기존 연구에서 ‘최초’, ‘파격’, ‘불꽃’ 등으로 언급되며 탈역사화되어 사상가로 연구되지 못했다는 김복순의 문제의식⁶에 공감하며 이를 극복하

없다고 생각하는 바요. 나는 아직 부인의 개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는 고이며 또 자신의 이상은 비상한 고위에 존함이오. 혁신으로 이상을 삼은 카츄샤, 이기로 이상을 삼은 막다, 진의 연애로 이상을 삼은 노라 부인, 종교적 평등주의로 이상을 삼은 스토우 부인, 천재적으로 이상을 삼은 라이쵸우 여사, 원만한 가정의 이상을 가진 요사노 여사, 제씨와 여히 다방면의 이상으로 활동하는 부인이 현재에도 불소하도다. 나는 결코 차 제씨의 범사에 대하여 숭배할 수는 없으나 다만 현재 나의 경우로는 최히 이상에 근하다 하여 부분적으로 숭배하는 바라. 나혜석, 「이상적 부인」, 『나혜석 전집』, 이상경 편, 태학사, 2000, 183쪽, 밑줄 강조 인용자, 이하에서 작품 인용 시 전집의 쪽수만 표기.

2 양백화·박계강 역, 『인형의 가』, 『매일신보』, 1921.1.15-4.3.

3 양백화 역, 『노라』, 영창서관, 1922.6.

4 최정아는 나혜석이 제국과 남성의 이중 억압에 시달리는 조선에서 노라로 분한 신여성이었다고 논의하였고(최정아, 「한국의 노라, 나혜석」, 『제20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 자료집』,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17, 16쪽), 류진희는 나혜석의 불행하게 마감한 말년 때문에 노라형 여성의 불운을 증거하는 데 동원되어 왔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류진희, 「한국의 입센 수용과 노라이즘의 역학」, 『나혜석연구』 제2호, 나혜석학회, 2013, 206쪽 참조).

5 서정자는 나혜석의 글이 신여성으로서의 삶과 페미니즘을 구명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 동원되었으나 문학에 대한 본격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정자, 『나혜석 연구』, 푸른사상, 2016, 67쪽 참조.

6 김복순, 「‘조선적 특수’의 제 방법과 아나카 페미니즘의 신여성 계보-나혜석의 경우」, 『나혜석연구』 창간호, 나혜석학회, 2012, 11쪽 참조.

기 위해서는 ‘신여성 나혜석’이 아니라 ‘작가 나혜석’에 대해 주목하고 그의 문학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선구성과 작품의 완성도로 인해 나혜석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소설 「경희」(1918) 외의 소설 작품들은 전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의 수필·평론에 비해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나혜석은 1910년대부터 선구적인 신여성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았고 이후에도 글을 통해 계몽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주목받아왔지만 작가나 문학가보다는 화가나 예술가로 인식되었다. 1세대 신여성에 대한 비판과 무시가 성행하였던 1930년대에는 더욱 그러했다.⁷ 1930년대 장편 ‘김명애’ 집필소식을 전하는 글에서 “동경 유학생 시대에 여자계란 잡지를 창간하여 정월이란 호로써 단편소설을 만히 쓰는 화가 나혜석 여사”⁸로 소개된 것을 보면 나혜석의 문학에 대한 평가나 인식이 ‘여자계’ 활동에 멈춰있으며 작가나 소설가보다는 ‘여류화가’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4년 「人生揭示板」(『삼천리』)에서도 ‘소설가 김일엽’, ‘화가 나혜석’으로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으며, 나혜석의 시나 소설이 전반적으로 비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문단과 사회 모두에서 그가 작가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혜석 스스로에게도 문학이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다. 최근 십 년을 개괄한 수필 「화가로 어머니로」(1933)에서 ‘어머니’, ‘외교관 부인’, ‘여자화가’, ‘구미만유’라는 키워드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리할 때 거기에 ‘작가’나 ‘문학가’로서의 삶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이 글에서 “나의 생활은 그림을 그릴 때 외에는 전혀 남을 위한 생활”이었고 구미만유를 통해서 비로소 “내게 씌운 모든 탈을 벗

7 문단의 중심을 이루었던 남성 작가들에게는 물론이고 최정희를 비롯한 여성작가들도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의 성과를 평가절하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했다는 점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1926년 『조선문단』의 ‘여자부록’ 기획으로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과 더불어 소설(『현대부부』)을 게재했던 전춘강(전유덕)은 “문단으로보아도 여류작가는 감음이 심합니다. 나혜석, 김원주, 김명순 삼씨만 남우 재탕에 재탕을 거듭하야서 김이 빠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전춘강, 「여인 만필 (2) 여자여! 비는 오는데」, 『동아일보』, 1929.7.3.

8 「滿州國行의 廉想涉氏」, 『삼천리』, 1933.10., 67쪽.

고” “어린애가 되고 처녀가 되고 사람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자 한”⁹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인형의 집을 나서길 원했던 노라의 선언과 겹치는 것이며 1918년의 소설 속 경희가 갈망했던 삶이었으나 구미만유의 생활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고 결혼한 여성으로서 조선에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그에게 “깊히 뿌리 박혀진 예술심과 보리심”¹⁰은 그의 문학을 통해 발산되어야 했으므로 이 시기 그의 텍스트가 가지는 문학사적인 의미는 새롭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삶의 전반에서 몰락하고 고립되었으나 자신의 삶과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1933년 자전적 소설로 보이는 장편 『김명애』를 발간하고자 이광수에게 보내기도 하고,¹¹ 회고에 따르면 나혜석이 생애 후반에 쓴 원고가 다락에 50센티미터 높이로 있었다고도 한다.¹² 타계 전 해인 1947년에도 나혜석은 파리 생활이나 여러 추억을 쓴 일기같은 글을 쓰고 있었다는 증언도 전한다.¹³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마지막 일화를 통해서도 그에게 남아 있던 문학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작가 박화성의 회고이다.

여성인 탓으로 『조선문단』 여자부록의 차지만 되던 정월 나혜석, 일엽 김원주, 탄실 김명순, 춘강 전유덕 등의 활동도 큰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정월 나혜석 씨는 내 집까지 와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어 추모의 감회

-
- 9 나혜석, 「화가로 어머니로」, 『나혜석 전집』, 이상경 편, 앞의 책, 345-346쪽.
- 10 나의 십년 생활 중에는 계급과 빈부와 귀천의 굴곡이 가로 내려질리고 세로 흘러 나를 웃기고 혹 울리고, 즐겁게 또는 괴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억제해 하는 것은 오직 내게 깊이 뿌리 박혀진 예술심과 보리심이다. 위의 글, 347쪽.
- 11 이광수의 회고에 따르면 이기영의 작품 연재 후 조선일보에 나혜석의 “처녀작 장편을 연재하기를 주장하였지만” 문예적 교양이 부족했던 방응모 사장이 그를 막았다고 한다. 「春園 出家放浪記, 朝鮮日報 副社長 辭任 內面과 山水放浪의 前後 事情記」, 『삼천리』, 1934.6., 94쪽.
- 12 서정자는 나혜석의 조카(오빠 나경석의 장녀)인 나영균 교수의 증언을 통해 나혜석이 쓴 원고와 그림이 다락에 있었고 원고의 높이가 50센티미터는 되었으나 6.25 때 피란을 다녀오니 전부 없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야기 여성사-해방 후 영어교육 이끌어간 첫세대 영문학자 나영균 씨」, 『여성신문』, 1995.12.15., 서정자, 앞의 책, 287쪽 참조.
- 13 서정자는 자원봉사를 갔다가 나혜석을 만났던 박인경의 증언을 이구열의 책을 통해 전하면서 나혜석이 발표를 하지 못했지만 지속해서 글을 쓰고 있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위의 책, 286쪽 참조.

가 크다. 그로부터 22년이 흘러간 1948년 겨울이었다. 그날에야말로 아침부터 눈보라가 잠시도 멎지 않고 기세를 부리더니 저녁 나절에야 잠시 뜸한 때를 타서 나혜석 여사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여사는 내 손을 잡고 “모쪼록 건투하세요. 다 풀지 못한 우리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살면서 많이 써주셔야죠” 하였다. 처음으로 상면한 그의 부탁이 너무도 절절하여 나도 그의 손을 되잡으며 찬찬히 그를 살펴보았다.

젊은 시절에는 풍문으로나 사진으로나 그는 재기와 활기가 있는 예술가임에 틀림없었고 그의 글에서도 영롱한 총명을 감득할 수 있었는데, 모진 풍상이 얼마나 그를 학대하였으면 저렇게도 변하였을까 싶게 활기와 패기라고는 그의 모습 어디에서라도 볼 수 없었고 간절하게 말하는 음성조차에도 힘이 들어 있지 않아서 참으로 처량한 심사를 금하지 못하였다. 최초이며 최후이던 단 한번의 상봉이었지만 이 날까지 그 장면과 그 음성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서 무한히 솟구칠 능력이 무참히도 여사의 별세와 함께 묻혀버린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애달프게 여겨지는 까닭이다.¹⁴

그전까지 만나본 적도 없던 문단의 후배를 찾아와 “다 풀지 못한 우리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살면서 많이 써주”기를 당부하는¹⁵ 모습에서 작

14 박화성,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1977.12.1~30., 서정자, 앞의 책, 294-295쪽에서 재인용, 밑줄 강조 인용자.

15 박화성은 1938년 각필하였다가 1948년에 「광풍 속에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1948년 박화성을 찾아온 나혜석이 박화성의 ‘건투’를 빌었다는 것은 그 해 서울신문에 연재된 「광풍 속에서」를 읽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여주인공 영희는 노래 노라를 부르고 그에 대해 “여류 화가이면서 글도 쓰던 나 씨가” 지은 노래였다는 점이 다른 인물들 통해 언급되고 있다. 박화성은 자신의 선배 작가이자 현재 사회와 문단에서 자취를 감춘 나혜석을 호명하였고 나혜석은 용기를 내 후배 작가를 찾아왔던 것이다. 서정자의 논의에서도 「광풍 속에서」를 매개로 두 작가가 만났을 것으로 추측하였다(서정자, 위의 책, 212쪽 참조). 이러한 두 작가의 공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가 나혜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비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장편 『김명애』와 다른 원고들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1930년대 중후반 소설 작품인 「현숙」(1936), 「어머니와 딸」(1937)을 「경희」와 연계하여 ‘노라이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분석하여 나혜석의 작가의식을 고구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에서 1910년대 후반~1920년대 초반에 주목받았던 노라이즘이 1930년대 중후반이라는 상이한 맥락에 놓이면서 새로운 의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조미숙은 나혜석의 소설이 10년을 단위로 변화한다고 평가하면서 1930년대 작품들은 1910년대의 논리와 1920년대의 현실을 잃고 주제 의식이나 목적 의식이 없다고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¹⁶ 그런데 소설 「경희」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왔던 1930년대 중후반 소설 「현숙」¹⁷, 「어머니와 딸」을 노라라는 키워드를 통해 연결하면 신여성에 가려져 있던 작가 나혜석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¹⁸ 경희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며 끝나는 「경희」의 결말은, 단편소설이기에 가능했던 단호한 것이었지만 그 결론은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었다.¹⁹ 그렇다면 이러한 경희의 선택과 결의는 어떤 길로 이어졌을까. 나혜석은 김우영과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원하지 않았으나 인형의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조선의 노

16 조미숙, 「여성의 상태와 나혜석의 글쓰기-“경계”와 “아브젝트” 체험의 표현」,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2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참조.

17 기존 연구에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현숙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엇갈린다. 예를 들어 조미숙의 연구에서는 현숙이 당대의 성 모랄과 물신주의적 사고를 버무린 결정체라고 비판적으로 논의하였고(조미숙, 앞의 글, 386쪽 참조), 정미숙은 현숙이 남/녀의 위계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젠더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정미숙, 「나혜석 소설의 ‘여성’과 젠더수사학-「경희」, 「원한」, 「현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6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214-215쪽 참조).

18 진설아의 연구는 「경희」부터 「어머니와 딸」에 이르는 나혜석의 소설을 거주할 수 없는 여성들의 서사로 묶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나혜석의 해외 체험과 관련 수필들을 통해 거주에 대한 욕망을 끌어내고 소설 속 여성들을 실패와 비극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진설아, 「떠도는 근대 여성, 그가 꿈꾸는 ‘거주’에의 욕망과 실패-나혜석의 소설과 수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0호, 중앙어문학회, 2012 참조) 본고와 결을 달리한다.

19 이상경, 앞의 책, 45쪽.

라’가 된 솔직한 심경을 산문으로 풀어내는 한편, 노라들에게 조선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 곳인지를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이처럼 나혜석의 문학은 고립된 그가 자신의 내면을 노출하는 산문과 조선의 노라들을 서사화하는 소설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구분하며 논의되어야 한다.²⁰ 이는 ‘나혜석=신여성’의 등식에서 벗어나 나혜석이 가지고 있었던 작가의식을 정밀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조선의 노라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손성준의 연구에서는 나혜석의 「경희」를 포함하여 1세대 여성작가들과 2세대 여성작가들이 노라를 서사화하는 방식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에 집중하였다.²¹ 그런데 「경희」에 「현숙」과 「어머니와 딸」을 더해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면 나혜석이 새 삶에 대해 낙관하는 1세대 작가들의 방식과 잔혹한 현실을 서사화한 2세대 작가의 특징을 모두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정자는 「해인사의 풍광」(1938) 이후로 나혜석의 글이나 그림이 확인되지 않는 1938년부터 타계한 1948년까지를 ‘나혜석의 암흑기’로 명명하고 이 시기의 행적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 이 시기가 나혜석 연구의 보고(寶庫)임을²² 논의하여 본고에 시사점을 주었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1910년대 선구적 신여성으로 사회에서 동경의 대상이었던 나혜석과 1930년대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고립되어 갔던 나혜석이 그동안 단절적으로 인식되어 온 경향을 지양하고 후기 작품을 초기 대표작 「경희」와 연결하여 재독함으로써 그의 문학 작품을 연속선상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나혜석의 ‘노라이즘’

20 산문을 통한 발화의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한 연구는 본고의 주된 논의의 방향에서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는다.

21 손성준은 백신애의 「광인수기」(1938)와 이선희의 「계산서」(1937)가 노라이즘의 유행이 가져오지 못한 조선 사회와 남성들의 실질적인 변화와 도래하지 않은 여성의 해방과 연관되어 훨씬 잔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손성준, 「엘레나의 비장과 노라의 파탄-한국 근대소설의 주체적 여성상, 그 양가적 계보의 젠더역학」, 『국제어문』 제85호, 국제어문학회, 2020, 57쪽 참조). 이 두 작품은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나혜석의 두 작품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다.

22 서정자, 앞의 책, 279쪽 참조.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1879)에서 유래된 ‘노라이즘’은 특히 중국, 일본, 조선 동아시아 3국에서 입센의 작품이 『인형의 집』을 중심으로 수용되고²³ 그 중에서도 노라라는 인물이 당시 신여성 담론과 연계되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참조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²⁴²⁵ 한국에서의 입센 수용에 대해 연

23 이수은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1893년 다카야스 겐코[高安月郊]의 소개 및 번역, 시마 무라 호게쓰[島村抱月]의 번역에 이어 분게이쿄카이[文藝協會]의 공연이 이어져 3국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소개되었으며, 중국은 1914년 루징뤄[陸鏡若]를 중심으로 입센과 『인형의 집』을 소개하였고 1918년 6월 후스[胡適]와 뤼자룬[羅家倫]이 『신칭니엔[新青年]』 ‘입센 특집호’에 노라[娜拉]라는 제목으로 공역하였다고 한다. 특히 여러 글이 실려있던 ‘입센 특집호’에는 ‘노라’만이 완역되어 소개되었다. 이수은, 「번역의 동아시아적 계보와 문화적 상상: 입센으로 되돌아본 동아시아 근대 기획 ; 한국과 중국에서의 『인형의 집』 수용과 노라」, 『민족문학사연구』 제58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74쪽; 83쪽 참조.

24 Noraism denotes the cry for women to break with the family and seek individual freedom. Nora or New Woman is ironically a symptom of male fears about feminism. The male gender power of coercion reflects against the female gender struggle between ‘freedom from’ domination and ‘freedom to’ revolution. Thus, the ‘dangerous Noras,’ (Xianxian) are killed, punished or labelled as evil as a means of reasserting the male control(노라이즘은 여성들이 가족과 단절하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외침을 의미한다. 노라나 신여성은 아이러니하게도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의 두려움의 징후이다. 강제하는 남성 젠더 권력은 ‘지배로부터의 자유’와 ‘혁명으로의 자유’ 사이의 여성의 젠더 투쟁을 반영한다. 따라서 ‘위험한 노라들’(Xianxian)은 남성 통제를 재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해되거나 처벌되거나 악으로 낙인찍힌다). Lakshmi. R. Nair, From Gendered Subalternity and Marginality to Gendered Revolution and Empowerment: Mao Dun’s “Creation” as an Epitome of Nora-ism, *Singularities Vol.3 Issue 1*, 2016, p. 45.

25 Perhaps if Japan had discovered Nora at a different historical moment, her absorption into Japanese morality and gender relations would have been more similar to that in other nations. As it stands, Nora and Ibsenism were soon distorted into supporting the systems of patriarchy which limit choices for women. Rather than opening up choices for women, the way in which the new woman was configured strengthened gendered divisions of labour by claiming equality through difference(아마도 일본이 다른 역사적 순간에 노라를 발견했다면 일본의 모럴리티와 젠더 관계에 대한 적용은 다른 나라의 상황과 더 비슷했을 것이다. 현 상태 그대로, 노라와 입센이즘은 곧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는 가부장제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여성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보다, 차이를 통한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신여성을 구성하는 방식은 젠더 분업을 강화했다). Sara Osen-ton, *Differently Equal: Ibsen’s Nora, the New Woman and the Evolution of Self-Ori-*

구한 류진희의 연구에서도 조선에서 입센의 수용이 노라이즘 논의에 집중되었으며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여성 일반을 혼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 연구는 “인습에 반대하고 인간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것으로 노라이즘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조선에서 입센이 『인형의 집』과 헤로인 노라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담론적 역할을 노라이즘을 통해 논의하고자 하였다.²⁶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나 조선에서의 입센 수용과 관련된 담론과 구분되는 나혜석의 ‘노라이즘’을 그의 문학 텍스트를 통해 규명하여 그의 작가의식을 고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에서는 나혜석이 선구적으로 주목했던²⁷ 입센은, 셰익스피어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가장 많이 번역·공연되었다고 하며 1927년 입센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비평이 쏟아지고 ‘부녀해방’의 강력한 표상이 되었지만 1936년 이후로는 공적 담론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한다.²⁸ 1920년대 후반에 이미 『인형의 집』의 시효성 문제까지 대두되었다는 판단도 있다.²⁹ 그런데 이상경은 ‘사람이 되고저’라는 것이 나혜석이 여성으로서 추구한 평생의 목표였으며 그의 글이나 행동을 관통하는 주제이고 그림 속에도 그러한 흔적이 나타난다고 논

entalization in Japan, *Canadian Review of Comparative Literature/Revue Canadienne de Littérature Comparée*, 38(2), 2011, p.236.

26 류진희, 앞의 글, 206; 202쪽 참조.

27 일본에서는 입센의 《인형의 집》이 1901년 완역되어 출간되었고 1910년대에는 6권의 번역서가 간행될 만큼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김재석, 「1920년대 〈인형의 집〉 번역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6호, 한국극예술학회, 2012, 12면 참조) 나혜석은 일본 유학 시절 이 작품에 대해 책이나 공연으로 접했을 것이다. 류진희의 연구에서는 「이상적 여인」에 대해 나혜석이 조선의 어떤 논자보다 일찍 입센이라는 작가의 이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노라에 대해 직접 발화한 것으로 논의하였고(류진희, 앞의 글, 206쪽 참조) 손성준은 『인형의 집』이 세 차례나 번역된 1920년대 초중반을 ‘노라이즘의 전성기라고 평가하였다(손성준, 앞의 글, 49쪽 참조).

28 류진희, 앞의 글, 196-197쪽 참조.

29 또한 이수은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여성 운동 차원에서 조명되었던 조선에 비해 이 작품이 전근대성과 봉건성을 타파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수용되었고 1935년 ‘노라의 해’로 불릴 정도로 ‘인형의 집’ 붐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수은, 앞의 글, 89쪽; 92쪽 참조.

의했다.³⁰ 나혜석의 1935년 인터뷰에서도 ‘자기 희생’을 하며 결혼 생활에 들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밝히고 “인간으로 자유스럽고”, “나의 마음껏 예술의 창작으로 정진하고 싶다”³¹라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그의 전생의 목표이자 예술의 원동력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혜석에게 노라이즘은 한 때 유행한 외부의 담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한 삶의 목표이면서 「경희」에서 시작하여 「현숙」과 「어머니와 딸」까지 관통하는 작가의식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 장에서는 각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하기 전에 나혜석의 노라이즘이 어떻게 지속되면서 변천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겠다.

나혜석은 먼저 시 「인형의 가」에서 “사람이 되고저”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임을 노래하고 이후 단행본에 노랫말을 수록할 때는 제목을 아예 ‘노라’라고 하여 그 캐릭터에 초점을 두었다.

1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기뻐하듯/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남편의 아내 인형으로/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후렴) 노라를 놓아라/최후로 순순하게/엄밀히 막아논/장벽에서/견고히 닫혔던/문을 열고/노라를 놓아주게 // 2 남편과 자식들에게 대한/의무같이/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나를 사람으로 만드는/사명의 길로 밟아서/사람이 되고저 // 3 나는 안다 억제할 수 없는/내 마음에서/온통을 다 혈어 맛 보이는/진정 사람을 제하고는/내 몸이 값없는 것을/내 이제 깨도다 // 4 아아 사랑하는 소녀들아/나를 보아/정성으로 몸을 바쳐다오/맑은 암흑 횡행할지나/다른 날, 폭풍우 뒤에/사람은 너와 나 (「인형의 가」 전문³²)

나는 인형이었네/아바지 딸인 인형으로/남편의 안한 인형으로/그네의 노리개이었네. // 노라를 노하라/순순히 노하다고/눅흔 墻壁을 헐고/

30 이상경, 「나혜석-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여성」, 이상경 편, 앞의 책, 19쪽.

31 나혜석, 「그 뒤에 이야기하는 제 여사의 이동좌담회」, 위의 책, 659쪽.

32 나혜석, 「인형의 가」, 이상경 편, 앞의 책, 113-114쪽.

곱흔 閨門을 열고/자유의 대기중에/노라를 노하라. // 나는 사람이라
 네/남편의 안해되기 전에/자녀의 어미되기 전에/첫째로 사람이라네.
 // 나는 사람이로세/拘束 이미 끈헛도다/자유의 길이 열렸도다/天賦의
 힘은 넘치네. // 아아 소녀들이어/깨어서 뒤를 따라오라/일어나 힘을
 發하여라/새 날의 光明이 빛쳤네. (「노라」 전문³³)

위의 두 작품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시 「인형의 가」에 비해 「노라」의 가사는 더
 직설적이고 평이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나는
 사람’이라는 선언이다. 주지하듯 매일신보에 실린 희곡 『인형의 가』의 마지막 연
 재분에는 나혜석의 시 ‘인형의 가’가 악보와 함께 게재되었는데 기존의 연구들에
 서는 이 시를 희곡 텍스트와 별도로 논의해왔다. 그런데 『인형의 가』의 번역을 면
 밀히 살핀 김재석의 연구에서는 양백화와 박계강이 번역한 『인형의 가』가 원작
 에 가깝게 상당히 정확한 번역으로 이루어졌지만 극 마지막 장면에서 나혜석이 쓴
 시가 노래로 나온 후 막이 닫히도록 각색되었다는 점³⁴ 짚으며 나혜석 시에 주
 목했다. 그는 이 시에서 강조되는 것이 ‘노라를 놓으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용이 관객들에게 노라의 가출과 그 이후를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
 저왔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원작자 입센이 의도한 전근대적 사회
 의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여성의 해방이라는 문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³⁵ 이러한 각색은 이 작품의 번역과 소개가 김일엽을 비롯한 『신여자』 측 인물
 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³⁶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양백화는 연재 후

33 나혜석, 「노라」, 『원본 나혜석 전집』, 서정자 편, 푸른사상, 2013 개정증보판, 20쪽, 띄어쓰
 기 인용자 수정.

34 헬머의 마지막 대사 이후 “다음에 이아리에잇는 노리소리가 들리더니 그계숫나며 밋해서
 무거운문을닫는소리 울너들니이다”라는 지문으로 끝이 난다. 김재석, 앞의 글, 33쪽 참고.

35 김재석, 「한국과 일본의 〈인형의 집〉 수용에 대한 비교 연구」,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지
 원 사업 결과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13, 15쪽 참고.

36 김일엽이 이 작품의 번역과 공연을 위해 노력해 왔음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1922년 간행된 『노라』의 발문에도 김일엽이 “2, 3년 전에 선생(양백화, 인용자)과 협력하
 야 이 노라를 무대에 소개하라”했다는 언급이 있다(김재석, 앞의 글, 13쪽 참고). 이수은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김일엽이 이 작품을, 히라쓰가 라이초 등의 영향을 받은 나혜석을 통해

『인형의 가』에 대하여』를 게재하며 입센이 ‘부인 문제’에 집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수은은 노라를 여성 해방의 대표적 인물로 상기시키고자 하는 수용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해석하고 있다.³⁷

나혜석 또한 김일엽, 양백화와 같이 입센의 텍스트를 여성 해방 문제와 연계하여 공감했기에 공연 시 사용될 노래의 가사를 지으며 이 작품을 소개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혜석에게 노라는 어떤 의미였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손성준의 연구에서는 「경희」의 결말이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 노라의 “나는 내가 우선적으로 당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믿어요. 최소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³⁸라는 각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또한 서정자는 나혜석의 ‘사람 되기’라는 목표가 「경희」보다 한 해 앞서 발표된 「잡감-K언니에게 여함」(1917)에서 루소를 인용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제시하여 이 주제의식이 나혜석에게 단순히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수필에서 나혜석은 조선 여자도 사람이 될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루소의 “나는 학자와 장군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말을 인용하였다.³⁹ 1914년에 발표한 「이상적 부인」에서는 ‘진(眞)의 연애’로 이상을 삼았다는 점에서 부분적 승배의 대상으로 호명했던 노라에 대한 인식이 「잡감-K언니에게 여함」에서 루소를 포함한 서구 근대의 사상과 융합된 후 소설 「경희」와⁴⁰ 시 「인형의 가」와 「노라」를 통해 나혜석의 노라이즘으로 숙성되어 작가의식을 담지하게 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새롭게 주목할 것은 나혜석이 「이상적 여인」 이후 노라라는 키워드와 ‘사람 되기’를 연계하며 자신의 노라이즘을 보여준 시기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때

서 입센의 『인형의 집』을 접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이수은, 앞의 글, 81쪽 참조).

37 이수은, 앞의 글, 89쪽 참조.

38 헨리크 입센, 안미란 역, 『인형의 집』, 민음사, 2014, 118쪽; 손성준, 앞의 글, 50-51쪽 참조.

39 서정자(2016), 앞의 책, 187쪽 참조.

40 서정자의 논문(서정자(2016), 앞의 책, 83쪽 참고)에서 적절히 짚었듯이 「이상적 부인」에서 노라를 포함하여 거명되었던 이상적 여성들은 4년 뒤 쓰인 소설 「경희」에서 스타엘 부인, 잔 다르크, 포드 부인으로 바뀌었지만 경희의 번민이 금수와 다른 ‘사람’이라는 깨달음에서 결의로 바뀐다는 점에서 시 「인형의 가」에 담긴 작가의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였다는 것이다. 1920년 나혜석은 임신 사실을 알고 도일(渡日)하여 2개월 간 미술 공부를 하고 올 만큼 출산 이후 자신의 삶이 달라질 것을 두려워하였다. 결혼 후 당시까지는 남편 김우영이 보여준 조선의 다른 남성들과는 다른 태도로 인해⁴¹ 자신의 일을 원하는 대로 해나갈 수 있었던 그였으나 출산 이후에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민하게 예감했을 것이다. 이러한 나혜석의 노라 수용이 노라의 가출을 적극적으로 제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형의 집’ 수용 초기 나타난 노라의 담론 중에서 드문 경우라고⁴² 평가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때 결혼으로 얻은 아내의 자리에 이어 어머니의 자리까지 서게 할 임신과 출산이 당시 그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유화 개인 전람회를 열었던⁴³ 해인 1921년 3월에 나혜석은 「인형의 가」의 삽화를 그리고 시도 함께 실었던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1910년대 발표한 「이상적 여인」에서는 ‘진의 연애’로 이상을 삼았다는 점에서 노라를 거명하였지만 1920년대 초에 발표한 「인형의 가」와 「노라」에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를 위해 결혼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편의 안해되기 전에/자녀의 어미되기 전에/첫재로 사람이라네”라는 표현에 이러한 인식이 직설적으로 담겨 있다. 아내와 어미라는 지위를 강제하는 ‘결혼 제도’를 “엄밀히 막아논 장벽”, “견고히 닫혔던 문”으로 지칭하며 ‘연애’가 아닌 ‘결혼 제도’를 문제 삼

41 김우영의 「여자계를 축하야」(1918)에는 “우리 여자계에도 무슨 운동이 필요하다하면 먼저 여자도 사람이란 근본관념을 가져야 하겠다”는 말과 “모(母)인 사람보담 사람인 모, 처인 사람보담 사람인 처, 자매인 사람보담 사람인 자매, 여식은 사람보단 사람인 여식이란 자각을 가진 여자”라는 표현이 있어 이에 대해 서정자는 노라의 가사와 방불하다고 논의하였다. 서정자(2016), 앞의 책, 188-189쪽 참조.

42 등천, 「노라의 호명과 가출의 변증법-한국과 중국에서의 『인형의 집』 번역과 정전화」, 『민족문화사연구』 제58호,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연구소, 2015, 59쪽 참조.

43 3월 19~20일 경성일보사 내청각에서 6-7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여 5천 명의 인파가 몰렸고 비싼 값에 그림이 팔렸다는 기록이 있는(서정자(2013), 앞의 책, 795쪽 참고) 이 전시회는 남녀 통틀어 서울에서 열린 최초의 한국인 유화 개인전이였다(김윤정, 「식민지 근대의 문화번역과 신여성-나혜석을 중심으로」, 『나혜석연구』 제4호, 나혜석학회, 2014, 202쪽 참조).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혜석은 1920년대 초, 노라라는 키워드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나 연애 등 정서나 인간관계에 천착한 것이 아니라 근대적 결혼 제도와 여전히 존재하는 가족주의의 전근대성을 비판하였고 이러한 메시지를 ‘소녀들’을 호명하며 발신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입센이즘이나 노라이즘의 조선 내 위상은 변화하였다. 「현숙」이 발표된 1936년에 박영희는 입센 사후 30주년을 기념한 글에서 입센의 ‘인형의 집’이 현대인의 모순된 생활을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 ‘결론’을 말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기에 문예비평가들이 입센을 ‘개인주의에 입각한 작가’로 평한다고 설명하였다.⁴⁴ 또한 조선에서 주로 남성 논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노라에 대한 담론은 신여성과 겹쳐지면서 남녀관계의 성적 도덕의 문제로 엮이고 그로 인해 가출이 아니라 집으로의 ‘귀환’을 향해 수렴되었다. 특히 노라의 가출이 부유한 부인의 히스테리의 발현이자 천동벌거숭이 지랄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1930년대 중반의 상황에서⁴⁵ 나혜석은 경희의 후일담을 보여주는 것 같은 ‘현숙’(「현숙」)과 ‘김 선생’(「어머니와 딸」)의 현재를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나혜석을 노라라는 ‘여 주인공’보다는 그 인물을 창조하고 그를 통해 사회적인 담론을 주도하는 ‘입센’의 자리에 대응시켜야 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개성주의’나 ‘자아주의’가 철 지난 것으로 인식되고 노라의 ‘개인의 해방’에서 민중적·사회적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승해진 이후에도⁴⁶ 나혜석은 여전히 여성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1935년의 나혜석은 여전히 “인간으로 자

44 박영희, 「헨릭·입센의 사회극(社會劇) 그 몰 후 삼십주년(歿後三十週年)에 제(際)하여」, 『조선일보』, 1936.5.22.

45 이 시기 ‘노라’는 가출하여 아이와 남편을 버린, 헤프고 바람난 여자로 비판되었고(「조선의 노라여! 왜 집을 나갔는가?」, 『매일신보』, 1935, 2.13, 이수은, 앞의 글, 93쪽에서 재인용) 이런 극단의 평은 나옹의 「극평 극연 제6회 공연 〈인형의 가〉를 보고」(『동아일보』, 1934.4.27~5.1)에서 언급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조선에서의 노라의 가출에 대한 담론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는 류진희, 앞의 글, 215~217쪽 참조.

46 김미지, 「〈인형의 집〉 ‘노라’의 수용 방식과 소설적 변주 양상-1920-30년대 소설과 평문에 원용된 ‘노라’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03, 179쪽 참조.

유”⁴⁷스럽기를 원한다고 인터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1920년대나 유효했던 노라이즘을 생애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서사화한 나혜석의 작가의식이 소박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센이즘이 철 지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에도 나혜석이 소설 텍스트들을 통해 쓰고 있는 그만의 노라이즘을 통해 결혼과 가족이란 인형의 집에서 내쳐지면 생존마저 위협받는 벌거벗은 삶으로 내몰렸던 당시 여성들의 현실이 생생하게 고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노라이즘이 1920년대에 여성들에게 개인의 자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 1930년대에는 달라진 담론과 사회적 현실과 결합하면서 같은 메시지임에도 새로운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임옥희에 따르면 1930년대에는 일본제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식민지의 제도교육이 여성 그 자체가 아니라 황국신민화 정책과 군국주의적 모성을 강조하는 반동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자유로운 성애와 주체적인 여성의식은 퇴폐적이고 이기적이며 방종한 것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상당수 신여성들은 군국주의적인 모성과 양치현모 이데올로기와 타협하게 되었다.⁴⁸ 이와는 달랐던 1930년대 나혜석의 작가의식이 가지는 의미와 그 의의를 이후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3 새로운 관계의 주도자: ‘결혼’하지 않는 신여성

소설의 제목을 정한 방식이 「경희」와 같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소설 「현숙」은 작품의 완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작품인 때문인지⁴⁹ 현숙이라는 인물 캐릭터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경희의 후일담으로 읽을 수 있는 「현숙」은

47 나혜석, 「그 뒤에 이야기하는 제 여사의 이동좌담회」, 이상경 편, 앞의 책, 659쪽.

48 임옥희, 「신여성의 범주화를 위한 시론」,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태혜숙 외, 여이연, 2004, 82-83쪽.

49 조미숙은 이 소설이 현학적이고, 독자를 감안하지 않으며 수수께끼처럼 말하는 데다 비문과 비논리성으로 인해 독해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미숙, 앞의 글, 387-388쪽 참조.

젊은 신여성 현숙을 중심으로 하여 인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⁵⁰ 기존 연구에서 「현숙」은 짝막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인간 성격의 이중성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나혜석의 파란 많은 인생살이가 배어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 바 있다.⁵¹ 본고에서는 이 작품의 신여성 현숙이 얼마나 작가와 닮았는가와는 다른 방향에서 그가 지향하고 실험하는 관계의 전복적인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모델이면서 여급으로 일하는 현숙이 깍다점을 인수할 자본을 모으기 위해 여러 남성들과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겪게 되는 상황을 서사화하였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서 주목받아온 것은 현숙이 남성들과 맺는 관계의 특이성이었다.

“(…) 정말은 감정보다 회계, 회계 그것 말이야…… 응 무엇을 생각해…… 연애의 입구는 회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아. 참 나는 지금까지 감정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실패해 왔어. (…)” (「현숙」, 159쪽)

현숙은 감정이 아닌 회계로 시작되는 관계를 표방하면서 깍다점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투자해줄 남성들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K의 투자 번복에 실망하는 현숙, 어떤 남성에게 바람을 맞고 분노하는 현숙, L과의 관계로 방향을 급선회하며 기뻐하는 현숙을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남성에 의존하는 비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를 평가하기 쉽다. 이는 당시 허영에 찬 부박한 신여성에 대한 통념과 같은 방향에서 신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특히 현숙이 L에게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결말은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 인물도 난해하고 그를 표현하는 대화와 장면 묘사도 매끄럽지 않기 때문이다.

50 안숙원은 「경희」와 「현숙」을 부분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만 「경희」가 가정 안에서 유교적 가부장사회 가족윤리에 반발하는 여성을, 「현숙」을 가정 밖에서 전통적 결혼 형태에 대한 부정과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조적으로 보고 있다(안숙원, 「신여성과 에로스의 역전극 : 나혜석의 「현숙」과 김동인의 「김연실전」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호, 2000, 74쪽 참조). 본고에서는 결혼 제도와 관련시켜 두 작품을 연속선상에서 독해하고자 한다.

51 이상경, 앞의 책, 46쪽.

“그리고 당신은 오후 3시에 여기 와주세요! 언제든지 열쇠는 주인집에 맡겨둘 터이니. 우리 둘이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은 잘 노선생을 위로해 드리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당분간 선생에게는 이야기 아니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둘은 반 년간 비밀 관계를 가져요. 반 년 후 신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선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습지.”

L은 쓸쓸한 환희에 떨며 미소하였다.

“그런 일은 물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현숙은 두 팔을 벌려 뜨거운 손을 L에게 향하여 용감히 내밀었다.

(「현숙」, 165면)

그동안 남성들과의 관계가 ‘감정’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자인했던 현숙이 L에게 “우리 둘의 감정은 벌써 충분히 준비되었던 것”이며 “감정 과다라도 관계치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간 회계로 맺어지는 관계를 지향했던 태도를 누우치는 것처럼 보인다.⁵² 그리하여 현숙은 기존 연구에서 과거와 미래가 없는 단편적인 인물로 평가되었고 이 작품 또한 주제 의식이 불분명하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⁵³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존의 상식과 제도에서 수용되거나 납득되기 어려운 인물을 통해 전복적인 관계를 실험하게 한 것이 작가의 의도라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52 또한 반 년 후 신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가 의미상 배치되는 말이 이어진다. 이렇게 모순된 구절이 이어지는 것이 작가의 의도인지 오류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서정자, 이상경 편 전집 모두에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는 『삼천리』 원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etId=2&totalCount=2&itemId=ma&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types=&searchSubjectClass=&position=1&levelId=ma_016_0600_0450&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B%82%98%ED%98%9C%EC%84%9D+%ED%98%84%EC%88%99&searchKeywordConjunction=AND, (검색일: 2022.7.10.)

53 조미숙, 앞의 글, 386쪽 참조.

1934년 김억은 삼천리에 게재된 「문예작품과 여성」에서 조선의 여성들을 노라에 비교하며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엇던 편으로 보면 「노라」의 꿈가튼 해방운동은 발서 때가 지내엿읍니다. 그러나 조선에는 아직도 수만흔 「노라」가 잇으니 니르는 곳마다 새롭은 여성들이 망연하게 아뭇 자각은 업시 가정과 가족들을 내여 버리고 집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외다. 「입센」의 「노라」로 인하여 「엘렌 케이」가 생겼는지는 몰으거니와 조선의 「노라」들은 그러치도 못하고 해방운동을 「카페」나 술집에 하고 보니 딱한 일이외다. (...) 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을 돌아다 보고나니 조선의 여성들은 아직도 기름진 잠 속에 무쳐 세상을 몰읍니다.⁵⁴

위의 인용은 자각없이 타락한 신여성에 대한 당시의 인식과 담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나혜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꺾다점 경영을 위해 여러 남성과의 관계를 도모하는 신여성 현숙을 중심에 둔 작품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⁵⁵

그런데 이 작품에서 현숙이라는 인물의 서사는 신여성의 허위성을 밝히거나 그러한 인물을 처벌하고자 했던 남성 작가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 「경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경희는 결혼이 아닌 다른 길은 종일 땀 흘리고 남의 일을 해 주어야 하는 독립의 길이며, 사랑은 맛보지 못하면서 천대를 당하는 길이라고 예견했다.⁵⁶ 현숙이 타인들과의

54 김억, 「文藝作品과 女性」, 『삼천리』, 1934.6., 268쪽.

55 1938년 ‘現代 女性의 惡趣味’를 주제로 저명 인사들의 의견을 물었고 변호사이자 사회평론가로 소개된 辛泰嶽이라는 필자는 “浮虛, 경박, 그리고 허영의 弊”를 현대여성이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현대 여성의 악취미』, 『삼천리』, 1938.10). 그러나 이미 1917년에 발표한 「잡감-K언니에게 여함」에서 “여자가 허영의 결정체”라는 말에 대해 “허영이 있고, 욕심이 있는 자라야 공부도 잘 하고 대사업을 이루는 자”라고 대응하였던 나혜석이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서사화했을 리는 없다. 나혜석, 「잡감-K언니에게 여함」, 이상경 편, 앞의 책, 193쪽 참조.

56 경희의 앞에는 지금 두 길이 있다. 그 길은 희미하지도 않고 또렷한 두 길이야. 한 길은 쌀이

관계에서 겪고 있는 경험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계약 결혼 모티프’의 형상화⁵⁷로 보기도 하지만 현숙은 결혼을 의도하거나 지향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적인 결혼과 가장 먼 관계를 실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주도하고 끌고가는 것은, 스스로 여성에 대한 책임을 가졌거나 권리를 가졌거나 했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아니라 현숙 자신이다.

“그런 변명을 할 것이 아니요. 현숙은 암전한 여성이요. 그래도 남자가 거든 그 여자를 사람다운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어쩔소. 오늘 아침에 돌아오는 현숙을 보니 그리로 하여 타락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던 것이요.”

“참 이상한 일이요. 내게는 그런 책임이 없어요. 현숙의 배후에는 여러 남자가 있었는데, 곤란 받을 리도 없어요. 당신은 나만 책하지만 대체 당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소?” (「현숙」, 161면)

K는 금전을 지원하면 자신이 현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지만 현숙의 플랜 배후에 4, 5인의 남자를 의식하

곳간에 쌓이고 돈이 많고 귀염도 받고 사랑도 받고 밟기도 쉬운 황토요, 가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지 않은 탄탄대로이다. 그러나 한 길에는 제 팔이 아프도록 보리방아를 찧어야 겨우 얻어먹게 되고 종일 땀을 흘리고 남의 일을 해주어야 겨우 몇 푼돈이라도 얻어보게 된다. 이르는 곳마다 천대뿐이요, 사랑의 맛은 꿈에도 맛보지 못할 터이다. 발부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험한 돌을 밟아야 한다. 그 길은 뚝 떨어지는 절벽도 있고 날카로운 산정도 있다. 물도 건너야 하고 언덕도 넘어야 하고 수없이 꼬부라진 길이요, 갈수록 험하고 찾기 어려운 길이다. 경희의 앞의 있는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오늘 택해야만 하고 지금 꼭 정해야 한다. 오늘 택한 이상에는 내일 바꿀 수 없다. 지금 정한 마음이 이따가 급변할 리도 만무하다. 아아, 경희의 발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에 내놓아야 할까. 그것은 교사가 가르칠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어서 충고한대도 쓸데없다. 경희 제 몸이 저 갈길을 택해야만 그것이 오래 유지할 것이고 제 정신으로 한 것이라야 변경이 없을 터이다. (「경희」, 98쪽)

57 송명희, 「나해석의 급진적 페미니즘과 개방결혼 모티프」, 『인문학연구』 제9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182쪽. 이 외에도 여러 선행 연구에서 현숙이 이성과 맺는 관계를 ‘계약결혼’이나 ‘계약동거’로 논의하는데 본고에서는 ‘결혼’이나 ‘동거’의 형태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현숙의 실험이 전복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고 파악하였다. 서사의 최종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남성, L을 현숙에게 보내며 “L은 당신을 일로부터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이것이 L의 기득권”이라고 편지한다. 그 또한 자신이 다른 남성에게 현숙에 대한 권리를 이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여성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은 사물화된 주체로 존재하였고⁵⁸ 착종된 식민지 근대 공간에서 가부장적 사회는 결혼 제도 바깥에 있는 여성들을 기생과 애첩으로 묶어두고 성적으로 소비했다.⁵⁹ 그런데 현숙이 주도하는 이 소설 속 관계에서 그러한 남성의 기대는 배반당하는 것이었고 그를 용인할 수 없는 남성들은 현숙을 떠난다.

현숙은 L과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와의 관계를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지속할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다른 남성이 방문하였던 ‘오후 3시’에 그대로 L에게 와달라고 하는데 이는 L의 고유성이 그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⁶⁰ 그리고 현숙과 ‘동숙’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던 L이었지만 현숙은 자신의 공간을 공유할 생각이 없기에 “우리 둘이 여기서 살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를 통해 현숙이 미래에도 자신이 주도하는 관계의 패턴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현숙이 금전 관계를 가진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것으로 독해하는데 모델료를 받거나 깃다점을 위해 투자를 받는 관계에서 현숙이 남성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서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⁶¹ 노시인은 현숙을 위로하며 가난이란 “개 같은 놈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고

58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현숙이 ‘계약결혼’을 의도한다고 보고 생활력 없는 L과 계약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해석하고(안숙원, 앞의 글, 71쪽 참조) 깃다점 운영이 매춘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점(같은 글, 74쪽 참조)에서 본고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59 임옥희, 「신여성의 범주화를 위한 시론」,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태혜숙 외, 앞의 책, 91쪽.

60 안숙원은 이 작품의 남성 인물들에 대해 동일한 에피소드를 반복하는 서사 속에서 익명의 엑스트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속물적 남성 일반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다. 안숙원, 앞의 글, 70쪽 참조.

61 L에게 보낼 편지를 대필하는 장면에서 친구의 하숙에 있다고 적는 것, 노시인이 K에게 화를 내며 ‘남의 처녀를 농락’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하고 현숙이 노시인이 자신의 생활을 앞면 절망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이 또한 성적인 타락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싫은 것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생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자립하여 살아가야 하는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숙이 실험하는 남성과의 관계를 성을 파는 행위로만 독해하거나 현숙의 인물형을 ‘팜프파탈’로 해석하면 작가가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현숙에게 두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손성준은 당시 소설에서 미달태의 노라를 형상화하여 파탄의 원인을 여성의 내부에서 찾았던 남성작가들과 달리 여성작가들의 경우에는 파탄의 원인이 남성 혹은 가부장적 문화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논의하였는데⁶² 나혜석의 「현숙」도 같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숙의 행위의 특징에 집중하였으나 그 이유와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 현숙이 실패와 실망을 반복하면서도 이러한 이성 관계 실험을 계속하는 이유는 ‘노리개’와 ‘위안물’로 남아 있지 않고자 했던 노라(「노라」), 남편의 밥을 얻어먹는 개가 되지 않고자 결단했던 경희의 의지(「경희」)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희처럼 하나님께 힘을 구하더라도 노라처럼 ‘새 날의 광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작가는 현숙에게 ‘회계’와 더불어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를 실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혈연과 결혼으로 매개되는 기존의 ‘가족제도’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현숙은 노시인의 시집을 책점에서 애독한 일이 있으므로 노시인의 신변을 주의하고 돈이 생기면 반드시 술을 사서 부어 권고하므로 적막한 노시인의 생활은 현숙의 호의로 명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따라서 3인의 생활은 한 사람도 떼어 살 수가 없이 되었다. 금년이야말로 L이 입선되기를 기대하면서 노시인은 모델이 된 것이다. (「현숙」, 158쪽)

현숙이 실험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성 관계와 더불어, 현숙, 노시인, 젊은 화가 L 세 사람의 관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 여관에서 현숙의 옆방에 노시인, 아랫방에 청년이 지내며 “한 사람도 떼어 살 수가 없이” 된 이들은 혈연을 나

62 손성준, 앞의 글, 60-61쪽 참조.

눈 가족이나 감정을 나눈 연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가족제도를 구성하는 근간에서 벗어나 있으며 예술과 인간적인 호감을 기반으로 한시적으로 묶여있다. 안숙원은 이를 대체가족 공동체로 논의하였는데⁶³ 본고에서는 현숙이 가족이라는 제도와 거리를 둘 뿐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조차 유지하거나 지속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反)가족-가족되지 않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의 서사를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에 대해 권리를 따지는 K보다 여성을 인도하고 책임지기를 촉구하는 노시인이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는 현숙이 남녀 관계에서 원한 것은 책임이 아니라 회계에 있으며 여자를 인도할 책임이 남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 그 누구도 현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말에서 현숙은 L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노시인에게 말하지 말고 그를 잘 위로하라고 말한다. L과 현숙의 결합 소식을 누구보다 반길 노시인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고 그를 다시 찾지도 않는 것이다. 이처럼 현숙이 주도하고 실험해 나가는 관계는 남녀 관계를 넘어서 그가 맺고자 하는 타인과의 관계를 포괄하면서 기존의 연애, 기존의 결혼, 기존의 가족제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반(反)가족-가족되지 않기’는 전근대의 억압과 근대의 모순이 결합된 조선식(式) 인형의 집을 존속시키는 결혼과 가족제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⁶⁴ 나혜석은 김우영과의 파경뿐 아니라 나경석을 비롯한 친정 가족에게도 내쳐졌기 때문에 고립된 채 최후를 맞았다.⁶⁵ 그리고 오빠 나경

63 안숙원, 앞의 글, 67쪽.

64 이수정의 연구에서는 「현숙」에서 세 사람이 우정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이며 비혈연 공동체를 보여주고 「어머니와 딸」에서 구여성에 대립한 신여성의 연대를 보여주지만 공통적으로 최후에는 이성애 또는 결혼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이수정, 「나혜석의 남녀관계 인식과 가정 내 여성 주체성 실현」, 『청람사학』 제29호, 청람사학회, 2019, 80쪽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숙이 L에게 요구하는 관계가 결코 결혼이 아니며 영애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김 선생의 특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작가는 이 두 작품을 통해 이성애나 결혼 제도를 오히려 비판하는 것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65 나혜석은 1938년 후반부터 타계 때까지 가족, 친척을 포함한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였다. 김형목, 「나혜석 후반기 인생역정과 주변 인물들」, 『나혜석연구』 제9호, 나혜석

석을 비롯한 식구들마저 나혜석을 외면한 것은 집안의 망신이 된 나혜석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전근대적 사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혜석이 「현숙」을 통해 양치현모 담론을 배반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반(反)가족-가족되지 않기’를 실험하는 서사를 창작하였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서도 ‘반(反)가족-가족되지 않기’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 1930년대는 군국주의 체제가 공고화되고 식민지 자본주의의 폐해가 심해지면서 가족 공동체의 희생이 발생하였고 박태원, 이태준, 이효석, 김유정 등의 작가들은 가족의 해체와 그 문제를 서사화하였다.⁶⁶ 이렇게 남성 작가들이 가족의 해체를 그리면서 존속되어야 할 가족 공동체를 부각시킨 데 반해 나혜석의 「현숙」은 결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을 서사화함으로써, 식민 체제에 종속되는 가족주의와 그에 대항하면서 지켜내고자 했던 전통적 가족주의 모두를 거부하는 ‘반(反)가족’ 담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

4 ‘경희’의 후일담: ‘재혼’하지 않는 신여성

이상경은 「어머니와 딸」에 대한 논의에서 「경희」의 단호한 결말과 자신감 있는 계몽의 목소리는 이 소설에는 없지만 변화한 나혜석의 처지와 변화한 세태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⁶⁷ 그런데 「어머니와 딸」은 조선의 노라가 처한 현재를 다루고 있으며 「경희」와 비교할 때 그 의미가 입체적으로 살아난다는 점에서 재독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와 딸」의 주인공인 작가 김 선생은 딸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과거에 결혼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현재 독신으로 지내는 나이 지긋한 여

학회, 2016, 77쪽 참조.

66 홍순애는 박태원, 이태준, 이효석과 달리 김유정은 식민지 시기 전통적 가족주의를 옹호하지도 가족을 부정하는 반(反)가족주의를 재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半)가족주의’적이라고 논의하며 이것이 식민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국가에 종속된 가족주의에 복종하지 않는 대응 방식이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에 참조점을 준다. 홍순애, 「김유정 소설의 반가족주의와 ‘家’ 형성·존속의 이데올로기」, 『서강인문논총』 제43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458~459쪽 참조.

67 이상경, 앞의 책, 46쪽.

성⁶⁸이라는 설정에서 경희가 결혼 대신 택했던 ‘다른 길’의 현재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러한 구성을 「경희」와 함께 읽으면 경희의 후신이 김 선생인 것으로, 이 작품의 서사 내에서만 본다면 영애의 선택지 중 하나를 김 선생이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와 딸」에서 김 선생은 결혼 문제로 번민하는 영애를 보며, 독신도 결혼도 명쾌하게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가 강요하는 혼처를 마다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영애의 번민은, 부잣집으로 시집이나 가지고 생인 공부는 무엇하러 하는지 이해받지 못하던 경희의 그것과 비슷해 보인다.

“거기를 또 가니? 인제 고만 곱게 입고 앉았다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재미드랍게 살지 그렇게 고생할 것 무엇 있니?” (…)

“그것(공부, 인용자)은 그리 많이 해 무엇하니. 사내니 고을을 간단 말이나? 군주사라도 한단 말이나? 지금 세상에 사내도 배워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찢찢 매는데……” (…)

경희는 이 마님 입에서 ‘어서 시집을 가거라. 공부는 해서 무엇하니’ 꼭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속으로 ‘웁지 그럴 줄 알았지’ 하였다. 그리고 어제 오셨던 이모님 입에서 나오던 말이며 경희를 보실 때마다 걱정하시는 큰어머니 말씀과 모두 일치되는 것을 알았다. 또 작년 여름에 들던 말을 금년 여름에도 듣게 되었다. 경희의 입술은 간질간질하였다.

‘먹고 입고만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알아야 사람이예요. 당신대처럼 영감 아들 간에 첩이 넷이나 있는 것도 배우지 못한 까닭이고 그것으로 속을 썩이는 당신도 알지 못한 죄이예요. (….) 이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도 하고 싶었었다. (「경희」, 82쪽)

신여성이라는 존재와 그들의 근대적 욕망을 이해할 수 없었던 구여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경희는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서

68 작품 속에서 김 선생의 연령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생’으로 대우하는 여관 주인의 태도나, 김 선생이 영애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딸의 상황에 그를 대입해 보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딸을 키운 중년 여성으로 볼 수 있다.

사가 진행되면서, 아들의 권으로 딸 경희를 공부시켰지만 왜 일본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경희의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존대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여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던 사돈 마님도 손녀딸들을 학교에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는 구여성이 신여성의 실천상에 매개됨으로써 근대적 어머니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⁶⁹ 이처럼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까지 서사화되었던 「경희」에 비할 때, 20년 가까이 지난 1937년에 발표된 「어머니와 딸」의 서사에서는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이 진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영애라는 인물을 경희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신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경희는 결혼과 독신이라는 ‘두 길’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신여성상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영애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학비를 대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죽었으면’이라고 외치며 우는 외에 어떤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 신여성들에게 결혼이라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면서 대사회적 문제였고 여성들이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치러야 할 근대의 제도적 장치였다는 점에서 신여성의 변민의 중심에 있었기에⁷⁰ 경희처럼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결혼 실패 후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 김 선생은 영애를 보며 그가 ‘공상’만 하고 있다고 예리하게 인식한다. 「경희」의 경희는 작품의 결말에서 하나님에게 ‘무한한 광영과 힘’을 구하며 의지를 드러냈으나 경희가 변민했던 두 길을 모두 체험했던 작가 나혜석은 결혼과 가족이란 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난 여성이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이 또 다른 ‘액운’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했다.⁷¹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지각하지 못

69 김복순, 앞의 글, 33-34쪽 참조.

70 김윤선, 「또 다른 ‘신여성」, 태혜숙 외, 앞의 책, 191-192쪽 참조.

71 김 선생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부정적인 일을 ‘액운’으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아래 인용은 주인이 딸 문제로 인해 자신이 하숙에서 떠날 것을 강권하자 불쾌함을 느끼는 부분이다.

한 채 추상적으로 신여성의 삶을 갈망하는 것은 ‘망상’이라는 것을 김 선생은 충고한다. 경희가 그랬던 것처럼 김 선생은 길이라는 상징을 통해 신여성이 택할 수 있는 노선을 지칭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망상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바에야 쉬운 길(결혼)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가면 좋은 옷에 생전 배불리 먹다 죽지 않겠니?” 하실 때에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별별 떨며 대답하였다. “(...)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이지요. 보리 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조상이 벌어놓은 밥 그것을 그대로 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대로 얻어먹고 있는 것은 우리집 개나 일반이지요.” 하였다. (『경희』, 102쪽, 밑줄 강조 인용자)

“(…) 선생이 온 후로는 우리 영애란 녀이 시집 안 가겠다 공부를 더 해지라니 대체 여자가 공부를 더해 무엇한답디까.” (…)

“여자가 남편의 밥 먹으면 고만이지요.”

“남편의 밥 먹다가 남편의 밥 못 먹게 되면 어찌나요?”

“잘난 여자나 그렇지요.” (…)

“여자가 더 배우면 무얼해요.”

“더 배울수록 좋지요, 많이 아는 것 밖에 있나요.”

“많이 알면 무얼해요, 자식 낳고 살림하면 고만인걸요.” (『어머니와 딸』, 171쪽, 밑줄 강조 인용자)

김 선생은 혼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우습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 딸이 머리에 떠올랐다. 저 모녀와 같이 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싫다면 어찌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불의의 액운에 당한 것을 자기 과거 모든 액운 프로그램 중에 넣었다. (『어머니와 딸』, 173쪽)

이를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모순을 ‘액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액운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의 기저에는 그것이 구조적 모순이어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스스로 밥을 벌어서 먹어야 사람다운 것이라는 인식에서 주체적인 선택을 하고 그 길에 대한 의지를 다졌던 경희에서 더 나아가 김 선생은 “남편의 밥 먹다가 남편의 밥 못 먹게 되”는 상황까지 인지하고 대비해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만한 눈’으로 비녀 쪽진 부인들을 보던 경희는 결혼 문제로 번민하면서 이미 결혼하고 자식을 교육하는 부인들이 자기보다 몇 십 배 낫다고 생각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김 선생은 여관 주인인 영애의 어머니를 계몽하거나 영애를 교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자신의 딸이 김 선생에게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주인에게 불쾌감과 ‘귀찮음’을 느꼈던 그는 영애의 번민을 지켜보며 ‘초조’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서사는 마무리된다. 이러한 김 선생의 태도와 소설의 결말로 인해 이 작품은 무기력하다거나 치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⁷² 그리고 김 선생이 한운과의 대화에서 결혼의 좋은 점을 거론하고 있어 작가가 결국은 ‘결혼’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⁷³ 그러나 이 대화는 영애에 대한 한운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혼에 대한 작가의 진심이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⁷⁴ 작가는 자유연애결혼의 모순성을 경험한 후 결혼이 여성의 인격과 개성을 가정에 종속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⁵

그러므로 작가 나혜석은 이 소설에서 영애를 통해 자유연애나 근대적인 결혼이라는 기존의 신여성 담론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는데 동시에 그러한 담론과 요구의 이면에 내재된 모순을 인지하고 있는 김 선생을 인물화하여 신여성이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서사화하였다. 신여성과의

72 조미숙, 앞의 글; 정미숙, 앞의 글.

73 김복순, 앞의 글.

74 좀 더 면밀히 살펴 김 선생이 “남녀가 합해야 생활 통일이 되고 인격 통일이”(178쪽) 된다고 한 구절과 「이혼백장」(1934)에서 자신의 이혼에 대해 “우리 인격을 통일치 못하고 우리 생활을 통일치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427쪽)이라고 한 것과 겹쳐보면 생활과 인격의 통일을 할 수 있는 결혼을 긍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결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5 이수정, 앞의 글, 71쪽 참조.

재혼을 꿈꾸는 이기봉의 방에서 들리는 영애의 웃음소리가 결말에 놓임으로써 영애의 전도가 밝지 않을 것임을 김 선생과 마찬가지로 독자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과 무관한 하숙집 딸의 일에 김 선생이라는 인물이 마음을 졸이는 것은 영애가 처한 현실이 자신의 과거를 연상케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딸의 미래를 걱정케 하는 입체적인 인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사 속에서 젊고 매력적인 대상으로만 그려졌던 신여성들과 다르게 현실적인 존재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신여성으로 김 선생을 인물화한 것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여성 인물들은 작가 나혜석의 일면을 부여받고 있으나 그들을 나혜석과 등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혜석은 인물들을 창조한 작가이기 때문이다.⁷⁶ 나혜석의 「어머니와 딸」은 「경희」에서 아버지의 태도를 변주하여 보여주는 주인 여자 캐릭터뿐 아니라, 그러한 주인의 전근대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신여성을 대상화하는 신남성 캐릭터 이기봉, 어머니의 억압에 저항하여 근대적인 주체가 되기를 꿈꾸면서도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으며 자신을 대상화하는 이기봉의 문제⁷⁷를 지각하지 못하는 신여성 영애의 한계 등을 입체적으로 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 나혜석의 역량을 보여주는 문제작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을 「경희」와 비교함으로써 노라이즘을 기반으로 한 주제 의식에 더해 인물 설정과 서사 구성에서의 진보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나혜석의 문학 세계를 더 정치하게 읽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소설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나혜석의 경험과 신여성으로서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라이즘이 이 시기 소설이라

76 아무리 자전 소설이라고 하지만 『김명애』를 쓰고 있는 나혜석의 소식을 전하는 삼천리의 기자는 “이 소설이 발표된다면 재화(才華)의 이 여류화가를 싸고도든 제남성(諸男性)이 연애사도 은현(隱現)할 것이어서 흥미진진할 것”(「만주국행의 염상섭씨」, 『삼천리』, 1933.10., 67쪽)이라고 언급한다. 이를 통해 당시 신여성 작가의 작품을 독자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77 1920년대 조선의 자유연애결혼 담론을 분석한 이수정의 연구에서는 신여성들은 근대적 개인이 되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연애를 누리고자 자유연애결혼론을 받아들였으나 남성들은 근대적 개인이 되기 위해 구여성을 타자화하고 신여성을 결혼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신과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근대적 가정을 이끌 ‘현모양처’였음을 명확하게 짚고 있다. 이수정, 앞의 글, 69쪽.

는 장르를 통해 어떻게 서사화 되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나혜석은 수필 「여인 독거기」(1934)에서는 만족스러운 독거 생활에 대해 서술했으나 소설 「어머니와 딸」에서는 인형의 집을 떠난 여성의 삶에 대해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필 「총석정 해변」(1934)에서는 남편의 첩 문제로 집을 떠난 부인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했다고 하였으나, 소설 「어머니와 딸」의 김 선생은 결혼과 독신 어떤 방향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당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실패이자 낙오였고 특히 신여성인 여학생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회에서는 ‘노처녀’는 비정상이라는 논리를 통해 여성들을 억압했다.⁷⁸ 그러나 1933년 좌담회에서 신여성들의 결혼 기피의 근본원인으로 성격 차이나 경제적 이유를 들던 남성들과 달리 나혜석은 ‘불행한 결혼’ 그 자체가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⁷⁹ 그러한 인식을 소설에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희」와 그 후일담을 서사화한 「어머니와 딸」에서 인물의 태도와 결말이 보여주는 차이를 경희와 영애, 김 선생이라는 인물 개인의 의지와 역량의 차이에서 찾거나 작가의식의 퇴보로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혜석은 「어머니와 딸」을 통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경희의 번민의 배경이 된 1910년대 후반과 놀라울 만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발하면서 1930년대 중후반을 살고 있는 김 선생은 경희와는 달리 그러한 모순과 억압이 개인의 의지와 대응으로 격파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혼하지 않는 독거 여성이자 결혼을 (진심으로) 권하지 않는 선배 신여성을 서사화한 「어머니와 딸」은 「현숙」이 그랬듯이 결혼과 가족주의에 대해 당시 지배적인 담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된다. 참고로 1930년대 나혜석의 성과 사랑 담론의 급진성에 대한 김경일의 논의에서도 사 영역에서 결혼과 가족의 대안으로서 독신 생활은 전통 가족 제도와 결혼의 행태에 대한 일종의 우상파괴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⁸⁰

임옥희의 연구에 의하면, 1930년대에 섹슈얼리티의 해방과 자아선언을 하

78 김윤선은 1923년 창간하여 1934년까지 발간된 잡지 『신여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논의에 이르고 있다. 김윤선, 앞의 글, 196-198쪽 참조.

79 「만혼 타개 좌담회」, 『삼천리』, 1933.12., 84쪽.

80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108쪽 참조.

는 신여성들은 혈통에 기초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가부장적인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근대적인 의식과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하여 외세와 공모하는 여성들이기에 문제가 되고 일제 입장에서 보면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은 황국신민화와 순종을 강조하는 일제의 제국주의적 의도와 상충하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⁸¹ 이상경 또한 1930년대에 ‘참된 신여성’, ‘현대 여성’이라는 지향은 신여성에게 유능한 가정 관리자가 되고 현명한 어머니가 될 것을 요구하는 의미였으며 일제 총동원 체제에 이르면 ‘군국의 어머니’를 꿈꾸는 신여성에 대한 호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논의하였다.⁸²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혜석의 소설을 통해 이루어진 1930년대의 노라이즘은 이러한 총동원 체제의 부름에 반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5 나오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나혜석의 후기 소설 「현숙」과 「어머니와 딸」을 노라이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경희」와 연계하여 새롭게 평가하고자 했다. 이 소설들을 재독함으로써 1920~1930년대의 신여성 담론과 여성의 문제를 연속적인 시야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 나혜석에게 노라이즘은 한 때 경도된 외부의 담론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목표이면서 「경희」에서 「현숙」, 「어머니와 딸」까지 관통하는 작가의식의 토대를 이룬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혜석의 노라이즘은 루소를 포함한 서구 근대의 사상과 융합된 후 결혼과 임신을 경험하며 실질적인 여성 해방의 문제와 연계되었고 이는 소설 「경희」와 시 「인형의 가」, 「노라」를 통해 나혜석의 노라이즘으로 발현되었다. 근대적 결혼 제도와 가족주의의 전근대성을 동시에 비판하는 그의 인식은 사회주의 영향이 강화되고 여성에 대한 억압도 높아지며 노라의 가출이 강하게 비판받던 1930년대 중반 경희의 후일담으로 볼 수 있는 「현숙」과 「어머

81 임옥희, 앞의 글, 86쪽 참고

82 이상경, 「신여성의 자화상」, 『신여성』, 문옥표 외, 청년사, 2003, 193쪽.

니와 딸」을 서사화함으로써 1920년대와는 다른 의의를 획득하게 된다.

「현숙」은 젊은 신여성 현숙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머니와 딸」은 독거 생활 중인 신여성 김 선생을 관찰자로 삼아 결혼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현숙」에서 현숙이 주도하고 실험하는 관계는 기존의 연애, 결혼, 가족제도를 벗어나는 것으로 양치현모 담론은 물론, 식민 체제에 종속되는 가족주의와 전통적 가족주의 모두를 거부하는 ‘반(反)가족’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930년대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경희의 배경이 된 1910년대 후반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발하고 있는 「어머니와 딸」의 김 선생은 경희와는 달리 그러한 모순과 억압이 개인의 의지와 대응으로 격파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복합적인 신여성 캐릭터로서도 의의를 가진다. 이처럼 재혼하지 않는 독거 여성이자 결혼을 권하지 않는 신여성을 서사화한 「어머니와 딸」은, 결혼하거나 가족을 이루지 않는 현숙의 서사와 마찬가지로 전근대의 억압과 근대의 모순이 결합된 조선식(式) 인형의 집을 존속시키는 결혼과 가족제도를 모두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군국주의가 강화되며 가족주의와 양치현모 담론이 강조되었던 1930년대의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단절적으로 인식되어 온 1910년대 선구적 신여성 나혜석과 1930년대 나혜석을 연속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와 더불어 ‘신여성’이 아닌 ‘작가’로서의 나혜석에 대한 관심으로 나혜석 문학 연구의 방향을 선회하여 나혜석 문학을 총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동아일보』, 『삼천리』, 『조선일보』

단행본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서정자, 『나혜석 연구』, 푸른사상, 2016.
——— 편, 『원본 나혜석 전집』, 푸른사상, 2013 개정증보판.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논문

김미지, 「〈인형의 집〉 ‘노라’의 수용 방식과 소설적 변주 양상-1920-30년대 소설과 평문에 원용된 ‘노라’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호, 한국현대문학회, 2003, 173-197쪽.
김복순, 「‘조선적 특수’의 제 방법과 아나카 페미니즘의 신여성 계보-나혜석의 경우」, 『나혜석연구』 창간호, 나혜석학회, 2012, 7-50쪽.
김윤정, 「식민지 근대의 문화번역과 신여성-나혜석을 중심으로」, 『나혜석연구』 제4호, 나혜석학회, 2014, 189-230쪽.
김재석, 「1920년대 〈인형의 집〉 번역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6호, 한국극예술학회, 2012, 11-36쪽.
———, 「한국과 일본의 〈인형의 집〉 수용에 대한 비교 연구」,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13, 1-24쪽.
김형목, 「나혜석 후반기 인생역정과 주변 인물들」, 『나혜석연구』 제9호, 나혜석학회, 2016, 75-102쪽.
등천, 「노라의 호명과 가출의 변증법-한국과 중국에서의 『인형의 집』 번역과 정전화」, 『민족문화사연구』 제58호,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연구소, 2015, 37-71쪽.
류진희, 「한국의 입센 수용과 노라이즘의 역학」, 『나혜석연구』 제2호, 나혜석학회, 2013, 192-222쪽.
손성준, 「엘레나의 비장과 노라의 파탄-한국 근대소설의 주체적 여성상, 그 양가적 계보의 젠더역학」, 『국제어문』 제85호, 국제어문학회, 2020, 35-65쪽.
송명희, 「나혜석의 급진적 페미니즘과 개방결혼 모티프」, 『인문학연구』 제9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177-209쪽.
안숙원, 「신여성과 에로스의 역전극: 나혜석의 「현숙」과 김동인의 「김연실전」을

-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호, 2000, 61-91쪽.
- 이수은, 「번역의 동아시아적 계보와 문화적 상상: 입센으로 되돌아본 동아시아 근대 기획 ; 한국과 중국에서의 『인형의 집』 수용과 노라」, 『민족문학사연구』 제58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73-99쪽.
- 이수정, 「나혜석의 남녀관계 인식과 가정 내 여성 주체성 실현」, 『청람사학』 제29호, 청람사학회, 2019, 47-100쪽.
- 정미숙, 「나혜석 소설의 ‘여성’과 젠더수사학-「경희」, 「원한」, 「현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6호, 2011, 201-220쪽.
- 조미숙, 「여성의 상태와 나혜석의 글쓰기-“경계”와 “아브젝트” 체험의 표현」,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2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371-398쪽.
- 진설아, 「떠도는 근대 여성, 그가 꿈꾸는 ‘거주’에의 욕망과 실패-나혜석의 소설과 수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50호, 중앙어문학회, 2012, 515-538쪽.
- 최정아, 「한국의 노라, 나혜석」, 『제20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 자료집』,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17, 15-39쪽.
- 홍순애, 「김유정 소설의 半가족주의와 ‘家’ 형성·존속의 이데올로기」, 『서강인문논총』 제43호,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433-465쪽.

Nair, Lakshmi. R., From Gendered Subalternity and Marginality to Gendered Revolution and Empowerment: Mao Dun’s “Creation” as an Epitome of Nora-ism, *Singularities Vol.3 Issue 1*, 2016, pp.45-51.

Osenton, S., Differently Equal: Ibsen’s Nora, the New Woman and the Evolution of Self-Orientalization in Japan, *Canadian Review of Comparative Literature/Revue Canadienne de Littérature Comparée*, 38(2), 2011, pp.226-239.

Abstract

“Noraism” Written through Novels: A Study of Na Hye-seok’s Novels *Kyunghee* (1918),

Hyunsuk (1936), and *Mother and Daughter* (1937)

Nam Eunhye

Na Hye-seok, who displayed her admiration for Nora in her first work of writing *Ideal Girl* (1914), drew an illustration in “A Doll’s House” (1921), released a poem titled “A Doll’s House,” and included the lyrics to the song “Nora” in the book *Nora* (1922). Na Hye-seok, a first-generation “new woman,” was understood to be Nora of Joseon, who left the doll’s house after divorcing Kim Woo-young. Nevertheless, she never gave up on life and art. She published the novels *Hyunsuk* (1936) and *Mother and Daughter* (1937). These works can be newly evaluated in comparison with the representative work *Kyunghee* (1918). Both novels can be seen as behind-the-scenes stories of Kyung-hee. The author accuses the reality of being “Chosun’s Nora.” Na Hye-seok criticizes marriage and family systems that combine pre-modern oppression and modern contradictions through the Noraism contained in these novels. By rereading these novels together, the discourse on new women in the 1920s and 1930s and the problem of women can be discussed from a continuous perspective. In addition, this study argues that research on Na Hye-seok’s writings should shift its focus to Na Hye-seok as a writer, not as a “new woman.” It is hoped that this will lay the foundation for studying the internal continuity of Na Hye-seok’s literature.

Key Words: Nora, A Doll’s House, New woman, Marriage, Reminiscences

본 논문은 2022년 7월 21일에 접수되어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8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